



968호  
2014년 3월 4일 화요일

# 외대학보



4 우리학교 학제가 개편됐어요 6 유명무실 등록금심의위원회? 8 대학생 서포터즈의 두얼굴 12 민중가요의 선두주자, 백자



사진 홍보실 제공

**“학생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 우리학교 제 10대 총장으로 김인철 행정학과 교수가 취임했다. 2월 25일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이·취임식을 열고 외대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이번 해 3월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장을 맡는 김 신임총장은 “우리 학교의 고유가치인 어문·지역학기반을 강화하고 창의적인 융·복합 학문의 실현을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해부터 시작되는 통합캠퍼스를 운영하며 학문 간 소통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다니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김 신임총장은 100년 외대 개척을 위해 앞으로 △캠퍼스 인프라 개선사업을 통한 글로벌배움터의 현대화와 교통인프라 확충 △서울배움터의 교세확장을 통한 캠퍼스타운 건설 △지속적인 학교발전을 위한 재정확충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 밝혔다. 나아가 “향후 외대병원을 배속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충지를 모아갈 것”이라 덧붙였다. 박철 전 총장은 이임사에서 “김인철 신임총장은 학내의 중요한 직책을 두루 거친 역량있는 교육자이 동시에 대학행정가”며 “앞으로 외대 100년을 향한 미래 비전을 잘 그려주실 거라 확신한다”고 말하며 신임총장을 격려했다.

임유선 기자 88ys@hufs.ac.kr

## 2014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 대학원 등록금은 2.9% 인상

우리학교는 지난 해에 이어 이번 해도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다. 다만 신설된 L&D(Language & Diplomacy)학부의 등록금은 인문계열 등록금에 비해 6만 7천원 높게 책정됐으며, 대학원의 등록금은 지난 해보다 2.9% 인상됐다. 입학금은 학부와 대학원 모두 동결됐다.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는 2월 4일 오전 8시에 1차, 오후 6시 2차 회의를 거쳐 2014학년도 예산(안)과 2014학년도 등록금(안)을 심의했다. 최충희 서울배움터 부총장이 등심위 위원장으로, 김성수 기획조정처장, 김시홍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 윤성우 글로벌배움터 학생복지처장, 서울배움터 조봉현(사범·영교 09)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위원장, 김우송(서양어·네덜란드어 09) 부위원장, 글로벌배움터 홍성훈(자연·수학 08) 비대위 위원장, 최준현(통번역·스페인어 07) 부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외부전문가인 전익수 위원은 불참했다.

학교 측은 이번 학부 등록금 동결에 대해 등록금회계의 재정 규모가 부족하며 학교의 지출 규모는 늘어났지만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에 부

응해 등록금을 동결한다고 설명했다. L&D학부의 등록금은 특성화와 다양화, 차별화를 위해 인문계열과 다르게 책정됐다.

한편 우리학교의 9개 대학원 총학생회는 이번 대학원 등록금 인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등록금 납부를 보류하고 인상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등심위에 대학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못해 대학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된 인상이라는 것이다. 장한민(일반·경영 13)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등록금 인상은 대학원 학생 측에 등심위 참가 여부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이에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밝혔다.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는 2월 28일 국회 앞에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소속 5개 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 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연대해 일방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방지와 법적 제재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신입생 OT,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인문대 버스 화재...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대학생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이하 새터) 정말 최고예요!”

새 학기 시작 전 한껏 기대에 부풀 새내기 정연석(통번역·태국어 14) 군이 이번 신입생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녀온 소감을 말했다. 지난 달 17~19일 2박 3일 동안 양 배움터 새터가 있었다. 서울배움터는 속초 실내체육관, 속초 오션밸리조트와 에어포트에서, 글로벌배움터는 남양주 실내체육관과 힐링 웰리힐리파크에서 각각 새터 중앙공연과 숙박 및 타 행사가 진행됐다.

서울배움터에서 재학생 약 1170명, 신입생 약 1470명으로 총 약 2650명이, 글로벌배움터는 재학생 약 1000명, 신입생 약 1400명으로 총 2400명이 새터에 참가했다. 서울배움터 새터 중앙공연에서는 아카펠라 동아리 하울 등이, 글로벌배움터는 힙합 동아리 슬랩 업 등이 축하공연을 했으며, 그 외 신입생에게 전하는 공지가상이 진행됐다.

글로벌배움터 새터 중앙공연이 끝난 후, 17일 오후 7시경 단과대학들이 숙소로 이동하는 도중 인문대 버스 화재에 불이 났다. 사고가 난 버스에는 학생 42명이 타고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조사결과 엔진과열로 발생한 불이 버스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번 새터는 무사히 진행됐다. 이번에 입학한 김홍래(서양어·이탈리아어 14) 군은 “서울배움터 새터에서 과에 대한 자긍심이 생기게 됐다”며 “선배, 동기하는 모든 활동이 즐거웠다”고 말했다. 또 새터를 마친 후 최준현(통번역·스페인어 07) 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모든 단대 및 과가 통솔에 잘 따라줘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 같다. 모든 분들이 좋은 기억만 가지고 새 학기를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소영 87artist@hufs.ac.kr

## 박철 전 총장 재임록 편찬대

2월 25일 총장 자리를 김인철 총장에게 이임하고 8년 간의 임기를 마친 박철 전 총장의 재임록이 편찬됐다. 재임록에는 우리학교 제 8·9대 총장으로 연임했던 박철 전 총장의 재임 기간 동안 있었던 업적 등과 대학 행정 등이 기록된다.

박철 전 총장의 재임록은 퇴임 전부터 재임록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편찬이 진행됐다. △화보집 △언론에 기록된 박철 전 총장과 학교 구성원들의 업적 △영문판으로 구성돼 발간된다. 편찬 작업은 이미 완료됐다.

총장 퇴임 후 재임 기간 대학행정의 기록을 남기는 의미에서 다른 대학들에서도 재임록을 편찬하고 있다. 다른 대학의 재임록 편찬 사례로는 바로 서울여자대학교가 2001년부터 12년간 총장으로 연임했던 이광자 전 총장의 재임록을 지

난 해 발간한 바 있다. 고려대학교는 이기수 제 17대 총장의 재임록을, 서울시립대학교는 이상범 제 5·6대 총장의 재임록을 편찬했다.

그러나 재임록에 소요된 학교 예산을 둘러싸고 학교 구성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박용구 교수협의회 회장은 “본인의 재임 중 재임록을 편찬했다는 점과 학교 예산을 들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의견을 밝혔다. 조봉현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장 또한 “재임록 편찬이 개인적인 발간이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겠지만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예산을 들였다는 점이 문제”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이번 968호는 개강과 함께 우리학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표의 색을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969호부터는 이전과 같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 외대학보사 89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3월 17일(월)~3월 28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1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학생

지원서 마감일 : 3월 28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3월 29일(토)

합격자 발표일 : 3월 30일(일)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031-330-3112

문의사항 연락처 : 신민지 편집장(010-4002-0299)



학내 브리핑

새내기들의 길라잡이 될 릴레이 특강 시작!

이번 해 1학기 양배움터 전체 신입생을 위한 새로운 강의가 준비됐다. 서울배움터에는 흡스프로 세미나(HUFS Proseminar)가 특별교양강의로 개설됐다. 본 강의는 신입생 권장사항으로 한 학기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특강과 경력개발세미나로 구성되며 성적은 출석과 에세이 과제를 통해 평가된다. 흡스프로세미나는 매주 수요일 6시부터 오바마홀에서 2시간 동안 이뤄진다.

글로벌배움터에서는 기존의 신입생세미나 과목과 연계해 '외대 비전 교육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전체 신입생을 대상으로 총 8번의 특강이 예정되었으며 이 중 3번을 참석해야 신입생세미나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외대 비전 교육 프로그램 일정은 학교 홈페이지에 미리 공지됐으며 세향관에서 진행된다. 특강은 양 배움터 모두 김인철 신입총장을 비롯해 주요 동문 및 저명인사들의 강의로 구성된다. 이번 신입생 대상 세미나는 신입생에게 외대인으로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경력개발 및 대학생활의 로드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학기 추가등록 놓치지 마세요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14학년도 1학기 등록을 놓친 학부 재학생 추가 등록을 받는다. 전국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등록 할 수 있으며 타행에서도 우리은행 가상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단, 우리은행 가상계좌 입금은 1회만 사용할 수 있으니 자치회비 등 기타납입금 납부 시 등록금에 합산해 한 번에 납부해야 한다. 등록금 납부확인은 납부한 다음 날부터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졸업유예자 더 이상 학생예비군 아니에요

이번 해부터 졸업유예자(정규학기 초과자, 복수 전공은 11학기 이상)는 대학예비군이 아닌 지역에 편성돼 훈련을 이수하게 된다. 해당 신분에 맞게 훈련을 부과하는 국방부의 방침 때문이다. 당초 학습권 보장을 위해 훈련을 일부면제 한 취지와 일반예비군과 훈련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기존에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서 대상자를 관리했으나, 학생 훈련을 받지 않으므로 거주지의 예비군부대에서 훈련한다. 해당 예비군은 거주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대학직장예비군부대에, 동원지정 된 예비군의 훈련일정은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문의하면 된다.

이클래스(e-class) 홈페이지 새 단장

이번 학기부터 가상대학(사이버강의) 시스템과 이클래스 시스템이 통합돼 운영된다. 앞으로 사이버 강의 수강생은 이클래스 홈페이지에서 강의를 볼 수 있으며, 출석관리 및 과제제출도 가능하다. 더불어 기존 가상대학 사이트에서 보던 오픈강좌 역시 이클래스 홈페이지 열린강좌에서 동일하게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신설된 마이페이지에서는 수강 중인 강의전체에 대한 공지사항, 강의자료, 과제물 등을 한 번에 점검할 수 있다. 또한 과거 수강과목의 이클래스와 지금까지 업로드했던 모든 파일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이클래스 홈페이지(eclass.hufs.ac.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보궐선거 투표는 꼭 참여하세요!

양배움터 총학... 3월 말에서 4월 초 보궐선거 열려  
상경대, 서양어대, 일본어대도 3월 중 선거

지난 학기 양 배움터 선거가 무산됐다. 서울배움터에는 총학생회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글로벌배움터에는 단일 후보가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율 50%를 넘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 배움터는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발족했고, 이번 해 3월 말에서 4월 초 보궐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서울배움터의 총학생회 선거는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추천 및 입후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마감기한이었던 13일 오후 6시까지 후보 등록자가 없어 후보자 부재로 총학생회 선거를 진행할 수 없었

다.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선거는 예정된 개표 날 선거운동본부의 의제기로 투표가 하루 연장됐다. 하지만 전체 선거인단수 6962명 중 총투표자 수 3353명(48.16%)로 유효투표율 50%에 미치지 못해 무산됐다. 글로벌배움터는 지난 해 유래없는 선거무산으로 처음 비대위가 발족돼 지난 12월 총학생회 회칙에 비대위 관련 세칙을 신설했다.

이에 서울배움터 비대위는 3월 말부터 4월 초 중 보궐선거를 계획하고 있다. 글로벌배움터 비대위는 이번 달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해 12~14일 입후보자를 받는다. 그리고 18~20일 추천인 서명을 받아

이번 달 24일에서 다음 달 7일까지 선거 유세기간을 갖는다. 다음 달 8~10일 보궐선거가 진행해 14일 당선자를 공고할 예정이다.

서울배움터 단과대학은 현재 상경대학, 서양어대학, 일본어대학이 비대위 체제로 운영 중이다. 상경대학과 서양어대학은 이번 달 초 중으로 보궐선거가 진행될 예정이고 일본어대학은 이번 달 20~21일에 선거한다. 글로벌배움터는 모든 단과에 학생대표가 당선돼 총학생회 보궐선거만 치러질 예정이다.

최소영 기자 87ats@hufs.ac.kr

기대해 2014, 우리학교 새로운 대표!

지난 학기 선거를 통해 우리학교 학생대표들이 선출됐다. 학생들의 성원에 힘입어 뽑힌 대표들만큼 이번 해 우리학교를 잘 이끌어 가길 바란다.

영어대	홍지은(영어학부 12)
동양어대	고은비(인도어 12)
사회과학대	김상현(미디어커뮤니케이션 12)
법과대	김현중(법학 08)
사범대	유새롬(프랑스어 교육 12)
국제학부	이동희(국제 11)
글로벌경영	유정원(경영 12)
중국어	백수정(12)
동아리연합	김세원(인도어 10)
인문대	김주영(언어인지 12)
통번역대	임대치(일본어 09)
국제지역대	조국인(프랑스 09)
동유럽대	이선환(루마니아 10)
경상대	김정원(국제경영 10)
자연과학대	김정현(수학 09)
공과대	정문석(산업경영 10)
동아리연합	이윤학(화학과 10)

흡산(Hufsan)의 권리 죽다

학생권리 장례식 열려

지난 1월 22일 서울배움터 본관 로비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학생권리 장례식을 치렀다. 장례식은 학교 측이 조봉현(사범·영교 09) 비대위 위원장을 학생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촉발됐다. 이로 인해 학생대표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참석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김시홍 서울배움터 학생복지처장(이하 학복처)과 조봉현 위원장의 면담이 이뤄지며 서울배움터 학생대표가 등심위에 참석하게 됐다.

지난 1월 8일 학교 측은 대표성 인정을 위해 비대위를 인준한 전체학생대표자들의 서명을 요구했다. 이에 비대위는 회칙 상 정당한 절차를 거쳐 대표를 선출했다며 학교의 요구를 거부했다. 비대위는 16일과 17일에 등심위와 직결된 부서인 예산조정팀을 점거하고 박철 전 총장에게 대표성 인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20일까지도 답변이 없어 조봉현 위원장의 등심위 참석여부가 불투명하자 장례식을 열었다.

이날 장례식은 강유나(영어·영어 11) 비대위 집행부원이 진행을 맡았다. 참석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서 1분간 묵념을 했다. 고인 이력사 낭독을 맡은 조봉현 위원장은 "학생대표가 들어갈 수 없는 등심위에는 미래가 없다"며 "학생들의 권리 또한 죽었다"고 말했다. 정상석 대학언론협동조합 이사장은 추도사를 보내며 "한국외대 교수진이 법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등록금 책정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장례식에서는 비대위원들을 비롯한 60여명의 학생들이 현화행렬을 이어갔다. 강유나 집행부원은 "학교 측이 학교의 주인을 학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꼽았다.

학생대표의 등심위 참석여부 문제는 장례식 다음 달인 2월 3일, 김시홍 학복처장과 학생대표 간 면담이 이뤄지며 해결됐다. 김시홍 학복처장은 면담을 통해 서울배움터 비대위대표의 등심위 참석을 추천하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2월 4일 열린 등심위에는 비대위 소속 조봉현 위원장과 김우송(서양어·네덜란드어 09) 부위원장 이 서울배움터 학생대표로 참석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한국외대 60년사' 발간 미뤄져...

편찬과정 중 문제점도 제기돼

우리학교 개교 6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역사를 돌아보고 기록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사'의 출판이 개교기념일에 맞춰 공개될 수 있도록 미뤄졌다. 당초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사'는 2월 발행 예정이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사'는 총 3권으로 구성된다. 1권은 재단 설립 과정과 개교부터 현재까지를 시대순으로 다루는 시대사, 2권은 대학 본부나 단과 대학, 학부, 학과, 연구소 등 학교 내부의 역사를 다루는 기구사로 이뤄진다. 3권은 주제를 나눠 사진과 간략한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사진으로 보는 60년사다.

한편 지난 해 12월, 세계민속박물관과 역사관 관장으로서 편찬 작업을 진행해오던 노명환 사학과 교수는 교수협의회에 보낸 안건을 통해 편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원고가 미처 완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인쇄출판을 서두른 것이 문제가 됐다. 당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거쳐 수정·보완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출판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 수정

이 어려워져 나타난 우려다.

또 다른 문제는 박철 전 총장이 직접 편찬 과정에 개입하면서 역사편찬의 기본적인 원칙이 지켜지지 못했다. 박철 전 총장은 본인 재임기 편찬에 직접 목차를 보내는 등의 방식으로 관여했다. 노명환 교수는 "박철 전 총장이 본인 재임 동안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람이 그의 지식이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그 또한 역사 평가의 대상인만큼 편찬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형평성과 편찬 원칙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경우 편찬위원회에서 인터뷰 팀을 구성해 역대 총장, 학장 등을 인터뷰해 반영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방안을 제시했다.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보완해 좋은 역사를 완성해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히기도 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모의UN**  
**38th Blooming HIMUN**

**수습사무국원 모집**

★설명회★ 3월 6일 저녁 6시  
사회과학관 301호

★모집기간★ 3.3~3.8 자정

●지원자격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전 학부생(마지막 학기는 휴학시 가능)

●합격 공고 및 면접안내  
- 서류합격 : 3.9(일) 개별 전화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면접 : 3.10(월), 11(화)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 최종합격 : 3.12(수)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OT : 3.13(목) 필참

★문의★ [www.himun.org](http://www.himun.org) / 02-2173-2776 / 홍보기획팀장 박선영(010-6300-4482)

## 봄맞이, 양 배움터 새로이 단장하다



▲왼쪽은 글로벌배움터 제1기숙사 2인실의 새로 개조된 모습이고, 오른쪽은 서울배움터 사회과학관 전산 실습실의 교체된 컴퓨터의 사진이다.

양 배움터는 다가오는 봄 새 학기 입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학내 시설 준비를 모두 마쳤다. 양 배움터 교내 컴퓨터 교체에 이어 글로벌배움터는 기숙사인 제1기숙사 리모델링과 자연과학관 화장실 리모델링이 완공됐다.

서울배움터는 사회관 41대(PC 본체와 모니터 세트), 사이버관 22

대(PC 본체와 모니터 세트), 교수학습개발원 35대(PC 본체)의 컴퓨터가, 글로벌배움터는 공학관 45대(PC 본체)가 교체됐다. 박도석 서울배움터 디지털서비스팀장은 "2013년 이후 컴퓨터 교체분에는 다 국어 팩을 설치해, 학생들이 해당 학과 언어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컴퓨터 교체의 목적을 강조했다.

또한 글로벌배움터에서는 제1기숙사 여학생동이 개조돼 학생들을 맞았다. 외벽을 제외하고 내부 전체 리모델링과 가구, 온돌 바닥, 에어컨 등의 내부 시설을 새로 들었다. 이번 리모델링한 기숙사는 제2기숙사와 다르게 4인실과 공용 샤워실이 신설됐다. 새 단장한 제1기숙사는 4인실 32개, 2인실 40개로 총 208명을 수용할 수 있다. 기숙사비는 4인실 64만원, 2인실 97만원으로 100만원이 넘는 제2기숙사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송주환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장은 "학생들에게 저렴하고 편안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했다"며 이번 공사의 목적을 밝혔다. 반면 남겨진 남학생동에 대해 송 팀장은 "지난 총학생회에서도 이의 제기한 바 있으나 현재 예산이 부족해 고려 중에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 자연과학관 화장실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착공에 들어가 이번 해 1월 20일에 완공됐다. 남자화장실 1~5층, 여자화장실 1~4층 모두 면적 변화 없이 리모델링됐다. 남자 화장실은 동양식 대변기(좌변기) 3개 서양식대변기(양변기) 1개의 구조에서 동양식 1개 서양식 3개로 개조됐다. 여자 화장실 또한 동양식 3개 서양식 1개의 구조에서 2개의 서양식대변기를 추가해 서양식 3개 동양식 3개로 바뀌었다. 특히 장애인 화장실은 일반용 화장실의 2배 면적으로 내부시설로 장애인 보조시설과 세면대가 설치돼 편리함과 안전함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최윤영 기자 88dbsdud0799@hufs.ac.kr

## 국가장학금 2유형,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연계 반환돼

우리학교 학생들이 지난 해 2학기 국가장학금 1유형은 받았지만 2유형은 수령하지 못했다. 이는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과 연계해 학교가 지원액을 반납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하율과 자체장학금 지급액을 기준으로 지원된다. 우리학교는 지난 해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원받기 전 약정했던 자체장학금액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액을 반납하게 됐다.

그러나 학생들이 수령한 장학금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지난 해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의 지원금을 활용해 △HUFs Global Leader, Good Position 프로그램 △HUFs Global-network 교육 프로그램 △HUFs Global 지식공동체 형성 프로그램 등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7+1 해외파견 프로그램 지원금 등으로 약정했던 액수만큼 장학금을 지급했으나 한국장학재단에서 이것을 자체장학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추가적인 대형 예산 투입이 필요해졌다. 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

해 학생들에게 지급된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2유형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한편 우리학교와 같이 계획만큼 장학금을 확충하지 못해 다시 반환하는 등의 사례가 다른 대학에서도 늘어나면서, 교육부는 2월 9일 '2014년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 장학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2유형의 요건이 완화됐다. 예를 들어 지원을 받기 위해 최소한 등록금을 동결해야 하는 것은 그대로이나, 학교 개편으로 평균 등록금이 오른 경우에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면 한국장학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장학관리위원회에서 별도 검증을 거쳐 동결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대학에 지급하는 1천억 원 가량의 인센티브 역시 계획이 아닌 실적을 평가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등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수강신청 서버 맑음, 신청 방식은 조금 더 지켜봐야...

2014년 본·분교 통합으로 수강신청 방식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글로벌배움터와 서울배움터 학생들이 서로 다른 날짜에 수강신청을 했으나 이번 학기부터는 배움터 간 구분 없이 진행됐다.

이전 학기까지는 1, 4학년과 2, 3학년 학생들이 같은 날 수강신청을 했다. 그러나 이번 학기부터는 각 학년별로 다른 날짜에 수강신청을 진행했다. 지난달 3일부터 6일까지 4학년부터 학년 순으로, 7일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수강신청이 이뤄졌다. 수강신청 변경 및 취소는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각각 3월 첫째 주와 마지막 주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학지원센터 팀장은 "이번 해 2학기까지는 이대로 유지·운영한 후 수강신청 방식변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사항에 있어서는 "2학기 전에 내부 논의를 거쳐 학년별 수강신청 쿼터 조정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강신청과 관련해 학생들로부터 가장 많이 접수된 불만사항은 사전 공지 없이 수강신청 방식이 급작스럽게 변경됐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

해 김 팀장은 "변경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불편을 겪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도희(국제 11) 군은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며 "새로운 방식을 너무 성급하게 자리잡으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IT개발·인프라팀은 본·분교 통합과 학제개편에 대응해 수강신청 서버와 프로그램을 개선했다. 기존에 운영하던 서버 4대 중 오래된 서버 3대는 향상된 성능의 2개 서버로 새롭게 교체됐고 수강신청 프로그램도 개선했다. 이호균 IT개발팀 팀장은 "프로그램의 정보처리단계를 단순화 시켜 정보처리 속도를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오재민 IT인프라팀 팀장은 "실제로 통계 수치상의 분당 정보처리건수가 기존에 비해 20% 정도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이번 학기 수강신청에 대해 "본·분교 통합과 학제개편으로 인해 수강신청 서버에 문제가 발생할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무사히 넘긴 듯하다"고 평가했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 요즘 잘나가는 저선배 토대체 비결이 뭐야?

가만히 있어도 삼성의 채용 소식을 가장 먼저 받아 보고 트윗글리쉬로 매일매일 엿지있는 영어회화를 배우며 열정樂서, 삼성멘토링을 통해 솔루션을 찾는 그 선배의 잘나가는 비결,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 삼성그룹 소셜미디어

삼성블로그  
blog.samsung.com

삼성페이스북  
www.facebook.com/samsung

삼성트위터  
www.twitter.com/samsung

삼성 카카오프러스친구  
카카오프러스친구>검색>삼성



# 나뉘지고 합해지는 2014 新 학제개편

이번 해 서울배움터와 글로벌배움터가 통합 출범하면서 양 배움터 학제가 크게 개편됐다. 이번 학제개편의 가장 큰 변화는 서울배움터에 외교 전문가를 양성하는 LD(Language&Diplomat)학부와 글로벌배움터에 한국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한국학과, 국제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통합한 국제금융학부가 신설을 꼽을 수 있다.

그러나 LD학부는 주한미국대사관 대사를 지낸 Kathleen Stephens(심은경) 교수가 다음 학기에 임용될 예정이나 개강이 얼마 남지 않은 2월 말까지도 교수진과 강의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입시 결과를 위한 이벤트용'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국학과 역시 커리큘럼상 Cedar Bough Saeji 담당교수 1명뿐인 상황이다. 서울배움터의 영어대학 영어학과, 영문학과, 영

어통번역학과는 영어학부로 통합됐다. 서양어대학, 동양어대학, 사회과학계열(정치외교학부, 행정학부)과 글로벌배움터의 인문대학은 수사에서 학과제로 모집 선발을, 정시에서 모집단위 광역화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영어학부는 4년내내 학부제로 운영되나 광역화된 나머지 단과대학은 다르다. 수시·정시 구분없이 첫 1학기는 학부제로 운영되며 수시는 2학기에 학과선택을 하지 않고, 정시는 2학기 때 학과 배분이 이뤄진다. 학부에서 학과로 넘어갈 때 학과별 인원선발 방식도 단과대학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동양어대학과 서양어대학은 원하는 학과를 8지망까지 적어 1학기 성적순으로 학과를 배분한다.

그러나 동양어대학은 학과별로 120%까지 정원을 늘릴 수 있고, 서양어대학은 정해진 입학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인문대학은 3지망까지 받아 성적순으로 배분하며 입학정원은 변동없다.

한성철 이탈리아어과 학과장은 이번 광역화에 대해 "우리학교는 학과가 많아 입시 배치표상 상위와 하위 학과의 차이가 크다"며 "입시성적의 편차를 줄이고 학교의 입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어대학과 동양어대학 광역화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상혁(미디어 12) 사회과학대 학생회장은 "일 년이 아닌 한 학기만 운영되는 학부제는 단순히 입시결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외교학과는 광역화 이전에도 강의실과 수업시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인데 더욱 힘들게 될 것"이라 말했다.

반면 서울배움터의 중국학부는 중국언어문화학과와 중국외교통상학부로, 일본학부는 일본언어

문화학과와 융합일본지역학부로 개편됐다. 이번 중국어대학과 일본어대학의 학제개편에 대해 백수정(중국·중국 12) 중국어대 학생회장은 "학제개편으로 학과 쏠림 현상을 막고, 입학 때부터 자신이 하고 싶은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며 "언어뿐만 아니라 문화와 문학까지 융합해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말했다.

더불어 본·분교 통합으로 인해 이중전공과 전과제도에 변화가 생겼다. 양 배움터의 이중전공과 전과제도가 통합 운영돼 배움터 구분 없이 이중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하지만 양 배움터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연계전공의 배움터 간 이중전공 이수는 불가하다. 양 배움터에 동일하게 개설되는 부전공은 본인 소속배움터에서 이수해야한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 F학점 제외 성적표 발급 중단...학생들 반발 빗발쳐

14년 2월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는 변경이전과 동일

대학가에서 '학점제' 관행이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에 '학생성적 관리 개선방안'을 3월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달 3일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성적 관리지침 변경 공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2월 21일 이후부터 전체 재적생 및 기존 재적생을 대상으로 4학년 F학점 제외 성적표 발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이였다.

또한 학교 측은 F학점 과목은 재수강으로 성적 대체가 가능하므로, 졸업 이전에 재수강을 권장한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이번 공지는 같은 날 오전 10시에 있었던 4학년 수강신청보다 늦게 게시돼 학생들의 불만을 샀다. 4학년 황신애(공과·산업경영 11) 양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 때문에 당황스럽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5일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14학년도 1학기부터 주는 학점에만 개정이 적용되고 이전 학사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된 성적에는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교무처에 발송했다. 같은 날 서울

배움터 비대위는 교무처장과 면담을 갖고 7일 양 배움터 비대위와 면담 및 대안 논의를 결정했다.

양 배움터 비대위가 교무처와 학사종합지원센터의 면담을 거친 결과 현재 졸업예정자 및 졸업유예자는 '변경이전의 성적관리 지침'을 따르기로 협의했다. 이후 서울배움터 비대위는 "이 협의는 우선적으로 실시된 것이며 재학생의 소급적용 여부는 차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결정했다"고 전했다. 현재 양 배움터 비대위는 성적 관리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소급적용을 철회할 것과 학생 피해사례 조사결과를 공문으로 교무처에 발송했다.

이에 지난 달 27일 열리는 전체교수회의에 구체적인 성적관리 지침에 대한 논의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수회의 결과, 2월 28일 오후 5시부터 F학점 제외 성적증명서는 발급이 불가하다. 그러나 졸업대기자 및 유예자에 한해서는 F학점이 제외된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또한 수강신청의 기회가 적은 3,4학년 경우 교과부 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F학점 삭제를 지속적으로 검토 중이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 공릉동 외국인 교원 아파트 안녕하십니까?

배관에선 물 새고 배란다 비 새

공릉동에 위치한 우리학교 외국인 교원 아파트 시설에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릉동 외국인교원 아파트는 3층 건물로 가, 나 두 개 동으로 1983년부터 사람들이 거주해 지어진지 30년 이상 지난 매우 오래된 건물이다.

현재 1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는 상수 배관의 노후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국인 교원의 부인은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 녹물이 나오는 등 위생적인 불편이 많다"며 "윗집의 배관이 파손돼 큰 누수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래된 배관이 부식되다 보니 이처럼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 달 17일에도 가동 입구 바닥 아래 설치된 상수 배관에 균열이 생겨 보수공사를 했다. 게다가 건물 내부에 매몰된 배관은 눈으로 확인할 수조차 없어서 더 큰 문제다. 이연희 관리소장은 "워낙 오래된 배관이라 누수가 생길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배관은 인지할 수 없어 관리조차 쉽지 않다"며 "일부를 보수하고 있으나 전면적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후된 기와지붕 탓에 최상층 일부 세

대는 우천 시 비가 새기도 한다. 배란다 창틀도 마찬가지다. 오래돼 벌어진 틈으로 층별 구분 없이 누수가 발생한다. 건물의 전체적인 난방 시설도 열악하다. 아파트 노후로 건물 자체의 단열 능력이 부족하고 가스 난방을 각 방으로 분배해주는 장치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에 난방이 잘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주세대의 가스요금 부담도 커져만 가는 실정이다.

한편, 다양한 언어권의 거주자와 상주하는 관리자 간 의사소통 문제도 발생한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거주자의 각종 긴급 민원이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평일에는 각 처부 교원, 조교 등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주말에는 이조차도 어렵다. 이 관리소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건물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사업이 계획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 새 출발,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 한 여학생이 학사모를 공중으로 높이 던지며 또 다른 새 출발을 기약하고 있다.



▲ 입학식 신입생 선서 학생 대표자 2명이 대학생활의 새 출발을 의미하는 듯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열린 졸업식과 25일 열린 입학식은 세계로 나가는, 세계로 나아갈 외대인의 힘찬 새 출발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최수지(통번역·영어 10) 양은 "학부는 졸업하지만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해서 새로이 시작한다는 느낌이 강하다"며 "후배님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든 졸업만은 즐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학식은 양 배움터 학생들을 모두 서울배움터 오마마홀에 모아 진행됐다. 양은영(서양어·스페인어 14) 양은 "주 전공인 스페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학회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싶다"며 대학생활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최윤영 기자 88clbsdud0799@hufs.ac.kr

## 사령

임

편집장 | 신민지(통번역·태국어 11)  
부 장 | 이은결(동양어·터키어 12)  
차장기자 | 임수진(일본·일본 13)  
최소영(통번역·스페인어 13)  
정기자 | 김다정(경상·경제 12)  
김태훈(동양어·마인어 10)  
임유선(L&D 13)  
최윤영(통번역·영어 13)

면

허규범(통번역·태국어 13)



지구촌을 읽다-⑥

# 정치적 프리즘으로 본 소치올림픽



홍완석  
리시아학과 교수 · 국제지역대학장

### 소치 광산곡

지난 2월 23일(현지기준) 러시아의 대표적 휴양도시 소치에서 지구촌을 열광시킨, 한국인들에게는 밤을 하얗게 지새우게 만든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소치올림픽은 참가국 및 선수단 규모, 경기종목, 메달 수, 투입예산 등에서 2010년 밴쿠버 올림픽을 능가하는 사상 최대의 겨울 스포츠 축제로 기록된다.

호사다마(好事多魔)라는 고사성어처럼, 소치올림픽은 개막을 앞두고 여러 정치적 이슈로 대회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는 위기가 있었다. 러시아 정부의 '동성애 반대법'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 체첸반군의 테러 위협, 서구와 러시아가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투영하는 우크라이나 사태, 서방 주요국 정상들의 개막식 불참 선언 등 잡음도 많았지만 올림픽 운영은 대체로 무난했다는 평가다. 대회 막판 러시아의 '홈 텃세'로 김연아의 금메달이 날아간 것은 우리에게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 푸틴의 올림픽

국제 사회는 소치올림픽을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클로즈업해 '푸틴의 작품', '푸틴의 개인프로젝트', '푸틴의 파티' 등으로 설명한다. 스포츠의 순수함보다 푸틴이 의도하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계 언론은 이번 동계올림픽을 "푸틴에 의한, 푸틴을 위한, 푸틴의 행사"로 규정한다. 이점은 소치 올림픽의 실질적 기획가로서 그가 보인 일련의 저돌적 행보를 추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푸틴은 러시아 최초의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소치를 직접 지목했다. 그리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뒤늦게 유치전에 뛰어 들어 진두지휘했다. 2007년 7월 과테말라에서 201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IOC 총회가 열렸는데, 당시 푸틴은 현지로 날아가 IOC 위원들을 상대로 전방위적 로비를 주도했고 최종 프레젠테이션에서도 영어와 불어, 스페인어를 섞은 세련된 연설을 해 분위기의 대반전을 이뤘다. 1차 투표에서 평창에 뒤졌던 푸틴의 러시아는 2차 결선투표

에서 4표 차로 평창을 제치고 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소치 동계올림픽에 대한 푸틴의 열정은 무엇보다도 대회 준비에 쏟아부은 천문학적 예산에서 잘 확인된다. 이번 대회는 500억 달러(한화 약 53조원)가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수치는 근대올림픽 218년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소련해체 이후 급속히 추락한 동계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해 자존심을 버린 고강도 유인책도 제시했다. 금메달 3개를 탄 한국 출신 안현수, 우크라이나 출신의 여자피겨 2관왕 타티아나 볼로소자르, 미국 출신의 스노보드 2관왕 빅 와일드 등 기량이 뛰어난 외국선수들을 귀화시켜 이들로 부터 무려 7개의 금메달을 쟁다. 뿐만 아니라 푸틴은 대회기간 많은 시간을 소치에 머물며 러시아 선수단의 '메달 색'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 그 결과 러시아는 금메달 13개로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 이래 20년 만에 동계올림픽 종합 순위 정상 탈환에 성공했다. 그렇다면 총감독으로서 연출한 소치올림픽을 통해 푸틴이 얻고자 하는 정치적 포석은 무엇인가?

### 소치올림픽에 은폐된 정치적 의도

지난 1980년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의 트라우마 극복을 지적할 수 있다. 모스크바 하계올림픽은 1979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무력 침공함에 따라 당시 미국을 대표로 하는 서방국가들이 항의 표시로 불참을 선언하며 소련을 위시한 공산권 국가들만 참가하는 반쪽 대회로 치러졌다. 푸틴의 러시아는 천문학적인 물량투입과 사상 최대 규모의 국가가 참가한 이번 소치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반쪽이 된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동시에 동·하계 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전통적 스포츠 강국으로서 국제적 명성을 되찾고자 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번 소치올림픽에서 국제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위대한 강대국 러시아의 부활'이다. IOC 규정은 정치와 스포츠의 분리를 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올림픽은 내셔널리즘의 '경연장'이 되고 국력의 '과시장'이 되곤 한다. 중국이 북경올림픽에서 찬란한 중화(中華)의 재현을 전 세계에 암시했듯, 푸틴도 소련의 해체 후 한때 비틀거렸던 러시아의 화려한 부활을 만천하에 과시하고자 했다. 소치올림픽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올림픽의 비전을 'The Russian Diamond'로 정하고, 문화·예술력을 총동원

해 '러시아의 꿈'이라는 주제로 엄청난 스케일의 화려한 개막식 공연을 하고, 종합 1위 탈환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소치올림픽에 소위 '올인'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와도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푸틴의 장기통치와 정책에 루스키들이 염증을 느끼고, 이에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저항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올림픽은 손상된 자신의 입지를 만회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루스키들은 올림픽 기간 내내 푸틴이 외쳐온 '러시아의 영광'에 취했다. 소치올림픽 개막식의 화려함과 세계 최고의 웅장한 스포츠 콤플렉스, 극적인 대회 종합우승은 루스키들의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치밀하게 연출된 애국주의적 정서가 가미되며 2012년 대선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 논란과 반 푸틴시위로 상처받은 리더십은 온전하게 회복됐다. 소치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푸틴의 정치적 시야는 이미 다음 대선이 있는 2018년에 도달해 있었다.

### 평창올림픽에 거는 기대

스포츠 세계가 순수하다는 것은 환상이다. 권력과 자본이 정치적,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이다.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이 그 단적인 예일 것이다. 지난 수십년 간 여러 국가에서 치러진 올림픽 대회의 성격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중국, 러시아로 대표되는 권위주의체제 국가는 대체로 스포츠를 국력을 과시하고 체제 및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지나치게 이윤과 상업성에 초점을 맞춰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다가오는 2018년 평창올림픽은 상업주의와 국가주의를 뛰어넘어 쿠베르탱 남작이 제시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고양하는, 그럼으로써 세계인 모두로부터 올림픽과 공감을 자아내는 지구촌 동계 스포츠 축제가 되길 기대한다.



### 외대인이 만난 세계

## 만리행! 너는 내 운명 동남아 자전거 여행을 다녀와서



벌써 개강이다. 나의 겨울방학은 어느 때보다 특별했다. 해외 자전거 여행동아리 '만리행'에서 동남아팀으로 꾸려진 7명의 팀원들이 1월 2일부터 2월 22일까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다녀왔다. 팀 이름은 FBI, 'Fare tourism Bicycle expedition Indochina'의 줄임말로 '자전거를 타고 동남아를 공정하게 여행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공정여행이란 현지에서 경제적·환경적·문화적·사회적으로 최대한 해를 끼치지 않고 한 일에 스스로 책임지는 여행이다.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공정한지 애매해 딱 잘라 말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공정여행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

먼저,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며 탄소발자국을 줄였고 현지식당과 현지숙소를 이용했으며 베트남에서 '밥퍼(밥을 퍼다)'라는 현지인들을 위해 급식을 배부하는 봉사활동도 했다. 여행 전에는 매주 공정여행에 관해 공부하고 사회적 기업 '착한여행'에서 조인을 얻었다. 여행 중에는 현지인들과 여행자들에게도 인터뷰 했고, 우리처럼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만나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도 했다. 쿠알라룸푸르에서는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를 만나 공정여행에 대해 조언과 격려도 받았다. 이렇게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무사히 자전거여행을 끝마쳤고, 이제부터는 우리의 여행을 영상과 블로그를 통해 공정여행을 더 알릴 계획이다.

기억에 남는 일은 동남아여행 첫 날에 베트남에 도착해서 당한 '택시사기'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화나고 억울했지만, 다음날 아침 오토바이가 거리에 가득 찬 멋진 호치민 풍경에 마음이 녹았다. 이렇듯 동남아는 나와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다. 동남아뿐만 아니라 자전거여행을 하면서 힘들고 짜증나고 화나는 경험들도 있었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그 만큼의 값진 보답이 있었기에 뜻 깊었다. 혼자였다면 하지 못했을 일도 함께해서 이르게 해준 백종석 대장과 권기원 부대장, 해진언니, 승원이, 재현이, 정현이한테 감사하다. 동남아팀의 모든 것은 5월 21일 글로벌배움터, 5월 23일 서울배움터에서 열릴 발표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강지혜 (통번역·스페인어 13)

www.eKMTC.com

## 고려해운 창립 60주년

고객과 함께한 60년,  
그 열정으로 신뢰받는  
100년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대한민국 해운의 역사, 고려해운

Your Reliable Partner KMTC

고객을 위해 준비된 내일, 고객의 성공을 위한 앞선 발걸음  
고객의 꿈과 희망에 고속 엔진을 달어드립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하는 글로벌 물류파워,  
고려해운의 힘찬 항해는 계속됩니다.

본사 고객센터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부산지점 고객센터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 구멍 뚫린 고등교육법 11조...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생색내기용?

2010년 3월 3일 발행된 본지 923호에서는 그 해 처음으로 실시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과정을 자세히 조망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 지난 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이번 해부터는 등록금 교비회계 예산 편성 및 결산 시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처럼 등심위가 점점 중요해지는 데에 반해 관련 법안의 허점은 점점 더 수면 밖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등심위를 둘러싸고 사회적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등록금심의위원회란?

등심위란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해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 위원회다.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상 등록금 산정 및 예·결산 심사·의결권을 가진다. 고등교육법 제 11조에 따르면 등심위는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과 학생, 관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등심위가 처음 등장한 것은 공포일 기준으로 2010년 1월 22일이다. 이때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 처음으로 등심위가 등장했다. 이 때 법에 따르면 각 대학은 등록금 책정을 위해 등심위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로만 구성되도록 정해놓고 있다.

고등교육법 상의 등심위 관련 법안 신설 후 가장 큰 변화를 맞게 된 것은 2011년이다. 2011년 9월 15일 개정된 고등교육법 11조에는 처음으로 '학생위원이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 되도록 한다'는 조항이 등장해 등심위 내부에서의 학생 수를 보장했다. 또한 등록금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교 측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됐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됐다. 또한 등심위의 회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와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며 이를 공개하게 해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했다.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심위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등심위에 힘을 실어줬다.

이처럼 등심위는 기존의 일방적인 등록금 결정 과정과 달리 등록금을 결정할 때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 2010년 대학등록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등장해 등심위는 과도한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등심위가 시행된지 4년이 지났고 관련 법안이 여러번 개정을 거쳤는데도 관련 법안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아직도 들려오고 있다. 등심위 관련 법안,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 ◆등록금심의위원회, '취지'는 어디로?

지적이 가장 많이 들려오는 점은 등심위가 만들어진 목적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먼저, 등록금 결정을 위해 등심위를 거쳐야 하고 여기서 결정된 내용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즉 재단이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립학교 내에서는 등록금 결정권이 재단에게 있다. 마찬가지로 예·결산의 의결권 또한 재단에게 있기 때문에 등심위가 예·결산 의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현재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또한 정보 차이를 극복할 수 없는 점도 문제다. 학생과 학교가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정보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가 학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지 않는 이상 학생이 예산안 등의 전문적인 자료를 분석할 능력은 학교 측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등심위가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았다는 것이다. 명확한 운영 기준이 없으니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2월 5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1월 28일 기준 이번 해 등록금을 이미 확정된 147개 대학들의 등심위 평균 개최 횟수는 1.4회에 불과했다. 등심위를 단 1차례만 개최한 대학도 112개 대학이나 됐다.

우리학교도 등심위의 개최 횟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등심위가 처음 치러졌던 2010년 본지 보도에 따르면 등심위는 7일간 3차례 진행됐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남아있는 2012년과 2013년에도 등심위가 각각 4차례, 3차례 이뤄졌으나 이번 해 등심위는 2월 4일 하루에 단 두 차례 치러졌다.

등심위의 또 다른 문제는 인원 구성이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등심위의 위원 구성은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 포함), 학생, 관련 전문가로 이뤄진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관련 전문가를 학교 측에서 선정해 관련 전문가가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학교 측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학생 수가 전체 정수 인원의 10분의 3만 충족하면 되는 상태에서, 전문가가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학생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중앙대학교의 등심위 내부 규정에 따르면 관련 전문가 및

학부모 또는 동문은 총장이 위촉한다. 연세대학교도 관련 전문가 위원은 법인이 대학의 재정과 예산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또는 교육행정 관련 전문가 중에서 추천해 총장이 위촉한다는 내부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

## ◆보호받지 못하는 대학원생의 권리

등심위 관련 법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생 수를 정해놓고는 있지만 어떤 학생 위원이 참여할지는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사실상 10분의 3이라는 숫자만 채운다면 특별한 조건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 탓에 등심위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등록금 결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본래의 목적과 상반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학교에서도 이번 등심위에서 대학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채 등록금이 인상돼 문제가 됐다.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소속된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가 반값등록금실현과교육공공성강화국민본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함께 2월 28일 국회 앞에서 가진 '일방적인 대학원 등록금 인상 방지 법적 제재 마련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이들은 등심위에 대학원 대표를 반드시 포함하라는 주장을 내세웠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학생대표 전원의 의견을 무시하더라도 충분히 의결될 수 있다"며 "등심위가 등록금설명회로 전락했다"고 등심위의 유명무실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 '설명회'로 전락한 등심위 잇따른 헛점 지적에 우리학교는 "내부규정 준비중"

## ◆내부규정 제정, 우리학교 맞춤형 개선안이 될까?

문제는 등심위를 어떻게 치르더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등심위의 관련 법안은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아주 최소한의 부분만 규정해두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규제 방법에 관한 법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등심위의 허술한 제도를 지적하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학교의 경우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부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다. 우리학교 학칙 제 67조에 등록금을 책정하고 심의하기 위해 등심위를 둔다는 내용으로 설치 근거를 마련해놓고는 있지만, 등심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시행 세칙은 '따로 정한다'고 명기할 뿐이다.

우리학교 등심위 내부규정에 대한 논의는 2012년 등심위도 있었다. 2012년 1월 12일 있었던 제 1차 등심위에서 학생 측은 등심위 운영규정을 검토하고 내부 규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으나 학교 측은 고등교육법에 관련 법규가 있고 내부 규정 제정이 단기간에 하기 어려운만큼 차후 심의 처장단과 규정을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리학교는 이번 학기부터 내부규정 제정을 준비한다. 특히 각 배움터 학생 대표와 대학원 학생 대표들은 이번 등심위에서 대학원 학생 대표가 참여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원 등록금이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한 만큼 서울배움터 학생 대표와 글로벌배움터 학생대표, 대학원 학생대표가 고부 등심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한민(일반·경영 13)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은 이번 내부규정 마련에 대해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0분의 3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조항을 포함해 어떤 학생 대표가 참석할 수 있는지에 관한 규정까지 내부규정으로 제정해 2015년 등심위에서는 대학원 대표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고등교육법 변천사〉

### 고등교육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1조(수업료등)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 고등교육법

[법률 제9936호, 2010.1.22, 일부개정]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각 대학은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학생·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6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각 대학은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각 대학이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⑥ 정부는 전체 국가재정 중 고등교육 지원 비율 확대를 위한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2년마다 고등교육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등록금의 징수,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2]

### 고등교육법

[법률 제11043호, 2011.9.15, 일부개정]

② 각 학교는 등록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定數)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1.9.15>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5>

④ 제2항의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8호의2의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 도시근로자 평균가계소득, 제9항의 고등교육 지원계획, 등록금 의존율(대학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등을 감안하여 해당 연도의 등록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⑤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1.9.15>

⑥ 등록금심의위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1.9.15>

# 한국외대 60주년 **응답하라 1954**

우리학교가 개교한지 어느덧 60년이 됐다. 1954년 4월 20일 개교 이후 지난 60년동안 신축 건물, 신설학과, 본 분교통합 등 많은 것이 바뀌었다. 외대인 여러분은 과거 우리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있는가. 사라진 풍경이지만, 예전에는 닭 대신 비둘기가 아침을 깨웠고, 학생들은 시계탑 시간을 보며 작은 교정을 뛰어다녔다. 쉬는 시간에는 미네르바 동산에서 학우들과 담소를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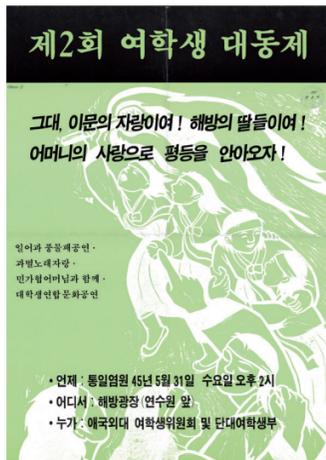
본지는 우리학교 설립 60주년을 맞아 우리가 모르는 사라진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우리 학교의 '사라진 풍경' 다섯 가지를 뽑아 보았다.

임유선 기자 88lys@hufs.ac.kr

## 총여학생회



▲ 1974년 7월 6일 청와대 방문해 육영수여사 환담



▲ 여학생 대동제 포스터

과거 대학에는 여성들의 인권향상을 위한 모임이나 총여학생회가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의 권리 향상과 사회적 차원의 복지제도가 늘어남에 따라 여학생 기구의 역할이 감소하면서 대학 내 총여학생회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학교 총여학생회는 1985년 총학생회내의 부서로 특화된 여학생위원회와 같은 해에 건설됐다. 그러나 2010년 서울배움터 22대 여학생위원회가 세워지지 않아 여학생위원회의 모든 권한이 총학생회에 귀속됐다. 현재는 서울배움터 여학생위원회가 총학생회에 권한을 위임해 총학생회 산하 특별기구로 운영 중이다. 글로벌배움터에는 여학생대표기구가 없어 총학생회 내 여성국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과거 우리학교 총여학생회는 여학생 대동제 진행과 1974년 여학생 동문화 연담회에서 청와대에 방문해 육영수여사와 환담을 가지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 임수경 벽화



▲ 구본관에 그려져 있던 임수경 벽화



▲ 벽화 앞에서 기념 촬영하는 북한 기자들 모습

본관(구본관) 건물 옆면에 햇불을 든 임수경의 모습이 1990년대부터 2003년까지 있었다. 임수경은 현재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1989년 글로벌배움터 불어과 재학 당시 평양 세계청소년학생축전에 참가했다. 그녀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파견돼 당국의 눈을 피해 일본과 독일을 거쳐 평양 땅을 밟았고, 이후 47일동안 북한 전역을 누비며 다녔다. 벽화는 당시 그녀의 방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제작됐다. 벽화를 보기 위해 1991년 남북기자단 교류 때 북한 측 기자들이 우리학교에 방문하기도 했다. 이후 훼손되어 1995년 총학생회 지원 하에 다시 제작됐으나 2003년 신 본관이 지어지면서 구 본관과 함께 사라졌다.

## 우리학교의 상징 '비둘기'



▲ 서울배움터 인문과학관 앞 비둘기등상

비둘기는 우리학교의 상징이다. 비둘기는 어딜 가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온다는 '귀소본능'이 있다. 그런 점에서 외국어를 배울지라도 언제나 그 정신은 조국 한반도를 향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학교의 상징으로 지정됐다. 평화의 상징이자 우리학교 건학이념인 진리·평화·창조와 어울리는 측면도 있다. 이후 1968년 '비둘기 모으기' 운동으로 캠퍼스 안에서 비둘기를 키우기 시작했고, 1969년 학교 당국은 12월 1일 비둘기 상징탑을 제막했다.

하지만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는 2010년 이전까지 우리학교에서 '성북동 비둘기'와 같이 골칫거리였다. 당시 학교에서는 비둘기를 키웠는데 번식능력이 뛰어난 탓에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나면서 학교 건물 곳곳 비둘기들의 동지와 배설물로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다. 아침 일찍 교문에는 경비원들이 매일 비둘기 배설물을 청소하기 위해 물을 뿌리고, 학생들은 아침부터 비둘기의 날갯짓으로 인한 먼지와 배설물로 인상을 찌푸리며 등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이후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건물 부식 우려와 학생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비둘기를 키우지 않게 됐다.

## 동문시계탑



▲ 1977년 4월 12일 동문 시계탑 준공식

1977년 4월 개교 23주년 기념으로 총동문회에서 동문시계탑을 만들었다. 소운동장(족구장) 입구에 위치했던 시계탑은 당시 단일규모 시계탑으로서는 국내 최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동문시계탑은 사면에 달린 4개의 시계가 동시 작동하는 것으로 상부에는 외대의 상징인 비둘기가 장식됐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시계탑이 자주 고장났고 학생들도 시계탑보다 휴대전화 시계를 많이 보자 시계를 학교마크로 교체했으나 결국 철거됐다.

## 미네르바동산



▲ 1960년대 미네르바 동산



▲본관 공사 전 미네르바 동산

작은 교정에서도 학생들의 웃음꽃이 피었던 곳이 있다. 바로 서울배움터 미네르바 동산이다. 그곳에서 교수님과 학생들은 야외수업과 단체사진 촬영을 했다. 뿐만 아니라 동아리 집합소로서 항상 기타와 노랫소리로 가득했다. 현재 미네르바동산 자리에는 대학본부 건물이 세워졌다. 사라질 당시 학생들이 반대시위를 할 만큼 우리학교 학생들에게 미네르바동산은 작은 쉼터이자 추억의 장소였다.

# 쏟아지는 대학생 서포터즈 · 홍보대사 · SNS기자단 ... 스펙에 눈이 먼 당신?

대학 캠퍼스에 차가운 공기가 물러가고 햇살과 함께 새 학기가 찾아왔다. 개강 후 학생들은 어떤 색다른 경험을 쌓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주로 여학공부나 자격증, 인턴, 공모전 등과 함께 많은 학생들이 몰두하는 것이 이른바 '대학생 대외활동'이다.

대외활동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순수 봉사 활동에 그쳤던 예전과 달리 마케터, 홍보대사, 서포터즈, 모니터요원, 기자단 등 그 종류는 매우 다양해졌다. 초기에는 학생들의 선택폭이 넓어져 대외활동 경험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지만 무분별하게 늘어난 지금은 과연 얼마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서포터즈... 얼마나 인기 많은데?

※ 활동영역은 글머리표인 해당 대외활동 종류로 이용합니다

활동명	서류 시작	서류 마감	서류 발표	면접 진행	최종 합격 발표	장비	활동기간	활동역역
[사단법인한국프로스포츠협회] 서포터즈 2기	2/14	3/26	4/2	4/8	4/17		9개월	활동비/승인서
[과나소시] 제 6회 대학생 홍보대사 채용간담회	2/24	3/21	3/26		3/26		4개월	활동비/승인서
[도봉서포터즈] 2014 대학생 장미인사이드 선 서포터즈	2/17	3/17					9개월	수료증/포상
[살롱유공] 대학생 서포터즈 2기	2/17	3/14		3/19			10개월	수료증/포상
[살롱유공] 대학생 서포터즈 2기	2/24	3/11	3/14	3/28	3/31		6개월	활동비/연료집
[매일유공] 대학생 서포터즈 3기	2/10	3/9	3/14	3/18	3/18		4개월	상용/인원집
[유공유공] 대학생 서포터즈 2기	2/27	3/9	3/14	3/18	3/24		6개월	활동비/승인서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10	3/9	3/17	3/21	3/24		4개월	활동비/승인서/기타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26	3/9	3/13	3/17	3/24		2개월	활동비/승인서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10	3/9	3/14				6개월	활동비/승인서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26	3/2	3/3		3/3		3주	수료증/기타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6	3/1					6개월	수료증/승인서/기타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18	2/28	3/4		3/4		5개월	활동비/승인서/포상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5	2/28			3/1		6개월	활동비/승인서/기타
[K-스타] 대학생 CSR 서포터즈 10기	2/8	2/28			3/3		3개월	상용/승인서

▲ 취업준비생 뿐만 아니라 대학생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는 매일, 매주마다 마감되는 대외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2월 한 달 동안 마감되는 '서포터즈' 관련 대외활동이 19개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기자단, 봉사활동 등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많은 대외활동이 게시됐다.

우리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월 25~27일 3일 동안 페이스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업, 정부부처 등에서 모집하는 서포터즈 · 기자단 · 홍보대사 활동에 관심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에서 70%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8%의 학생들이 '흥미로운 활동을 하며 경험을 쌓고 싶어서'를 첫 번째로 꼽았고, 뒤이어 22%의 학생들은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라고 답했으며, 3%의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니 불안해서'라고 응답했다.

관심만 큼이나 실제로 서포터즈의 경쟁률은 어마어마하다. 우리투자증권 제 1기 옥동 서포터즈는 8대 1, 신한금융투자 5기 서포터즈는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기업 서포터즈의 경우 100대 1의 경쟁률을 웃도는 경우도 허다하다. 학생들은 좋은 경



▲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차해 텔레비전에서 보니까 프랑스 백수 애들은 일자리 달라고 때려 부수고 개지람을 때는데 우리나라 백수 애들은 다 지못인줄 알아요. 자가 뭉서 그런 줄 알고, 착한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데." 영화 '내 갓배' 같은 예언에서 박중훈의 대사이다. 취업난에 물린 요즘의 대학생들을 보면 많은 생각이 든다. 사진은 경력개발센터 게시판에 붙여진 한 학생의 모습이다.

험을 쌓고 싶어서 서포터즈에 많이 지원하지만 정작 만족할 만한 활동을 하고 있을까?

◆ 최고의 아르바이트생은 대학생?

# 우리학교 3학년여 재학 중인 이△△양은 박람회 서포터즈 활동을 하며 기업의 홍보업체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녀는 "교내에 전단지 붙이느라 고생했다"며 "SNS활동부터 오프라인 활동까지 말 그대로 '박람회 홍보요원'같은 느낌이 강했다"고 말했다. 다행히 그녀가 속한 조는 '우수 조로 선정돼 상금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팀의 경우는 '무급 아르바이트' 같다고 말을 이었다. "저는 스스로의 만족과 즐거움이 우선이라 대부분의 활동에서 높은 만족을 했지만 단지 '스펙' 때문에 대외활동을 하는 주위의 친구들을 보면 많은 팀 과제와 학업을 병행하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 이번 해 2학년 2학기를 맞는 이△△군은 신입생 때 S대기업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이 군은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대기업 서포터즈를 하려면 학점 포기할 각오를 해야 한다"며 자신의 경험을 말했다. "강사 초청강의, 연수원 방문, 사업장 탐방, 취업체험 등 좋

은 프로그램이 많지만 휴학 중이지 않은 경우 학업과 병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다"며 "기업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이끌어 내야 해 매주 개별과제와 매달 팀별과제가 있어 힘들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포터즈 활동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 중 61%가 '활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들 중 30%의 학생이 '단순 아르바이트와 다를 바가 없어서', 또 다른 30%의 학생이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빼앗기는 등 서포터즈 활동으로 감수해야 하는 점이 많아서' 만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서포터즈에도 대학생만 대상으로 하지 않는 '와이프프로'나 '파워블로거'가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대학생 대상의 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다. 대학생은 스펙을 바라보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 더 열정적으로 활동에 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용호 글로벌비즈니스 경력개발센터장은 "취업시장에서 대학생이 얻을 입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 기업이 말하는 서포터즈는?

서포터즈란 지지, 후원의 뜻을 가진 supporter에서

유래한 말로, 여기에 접미사 er을 붙여 supporter 즉 지지자, 후원자라는 뜻이다. 운동경기의 서포터즈는 구단의 팬클럽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의 서포터즈는 팬클럽이 보다 홍보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의 성격에 더욱 가깝다. 학생들이 몇 십대 많게는 몇 백대의 경쟁률로 선발되는 서포터즈를 기업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인 S그룹에서 모집하는 '대학생 서포터즈'는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생 싱크탱크로 S그룹을 연구하고 젊은 목소리를 S그룹에 전달하며 S그룹의 입장에서 고민하면서 S그룹과 소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모호하게 정의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이 'SNS 서포터즈' 모집 활동내용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000 기업을 널리 알리는 일을 한다'고만 제시하고 정확한 서포터즈의 정의는 하지 않는다.

대학생 서포터즈에 선발되면 대부분 팀별활동과 개인활동, 정기 모임 참여활동을 한다. 이 활동들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연구 주제에 관한 기획안 도출, 운영공서에서 제시한 이슈에 대해 아이디어 제시'라고 명기됐다. 서포터즈에 선발된 학생은 '주요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이나 기업이 제시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등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기업 서포터즈 경험이 있는 이 군은 "좋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착취당하는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 서포터즈가 취업할 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대외활동이 포화상태에 이른 현 상황에서 서포터즈와 같은 활동이 취업 시 도움이 될지 확인할 수 없다. 대입사이에 근무하는 노승원씨는 보건복지부 휴먼넷 서포터즈, 스킨푸드 서포터즈,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 노씨는 "학교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수행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취업 시 가산점이 되며 실제로 면접 시 다수의 관련 질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용호 경력개발센터장은 "서포터즈는 홍보활동을 주로 하므로 제한적인 활동"이라며 "기업은 직무와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단순히 SNS 댓글달기 정도의 일만 했다면 조직운영의 실체를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또 정 팀장은 "서류전형에서 인턴이나 서포터즈가 약간의 우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업무에서 얼마나 연계가 되는지는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바에 달린 것 같다"며 "대기업 이름만 보고 홍보대사에 접근하면 시간과 노력에 비해 다른 기회비용이 날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소영 기자 87arist@hufs.ac.kr

## 운동중 (별장) 임수진 기자

### 스포츠계, 아직도 '다나까' 문화?

2월 16일 농구 팬들의 눈이 뒤집혔다. 유재학 모비스 감독의 언행 때문이다. 당시 KGC와 경기를 펼치고 있던 유재학 감독은 수비에서 실수를 범한 함지훈 선수에게 작전타임 중 화를 내다가 "입에 테이프를 붙이라"고 명령했다. 함지훈 선수가 테이프를 들고 머뭇거리자 "붙여 입에, 빨리 붙여. 붙여 이 XX야"라며 폭언도 서슴지 않았다. TV 생중계로 이 경기를 지켜보고 있던 농구팬들은 이 사건을 선수의 인권을 모독한 처사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유재학 감독이 "불편한 장면을 보여드려 죄송하다"며 공식적으로 사과했고 당사자인 함지훈 선수가 관찮다는 뜻을 밝히긴 했지만 유재학 감독을 보는 농구팬들의 시선은 여전히 곱지 않다.



▲ 인권유린 논란에 휩싸였던 유재학 모비스 감독과 함지훈 선수

상식적인 언행이 통용되는 문화 등에 여전히 얽매어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드러나는 오점들일 것이다.

최근 서울 소재 모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신입생 대상으로 배포된 '생활체육학과 규정'에는 '다나까' 말투 사용과 화장, 염색, 파마 특정 옷차림 금지부터 학교 내에서 이어폰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들어있어 논란이 됐다. 언제까지 스포츠계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 군대식 문화와 인권 침해가 당연한 것이어야 할까?

## 어깨너머 듣는 교양 강혜경(교양학부, 사회학의 이해 과목 강사)

### 나의 정체성과 대학생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새 학기가 시작됐다! 아마 땅속 지면 가까이 연하고 푸른 새싹들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모습을 드러낼 준비에 마냥 들떠 있을 것이다. 마치 새내기들이 대학이란 새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대체로 인생의 전반부는 가정에서의 시간이 경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 경험이 개인의 상황을 어느정도 형성해준다면, 대학은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곳이자 인생 후반부를 준비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의 장이다. 우리사회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는 것이 통과의례가 됐다. 그러나 대학은 성인으로서 삶의 방향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인생의 매우 중요한 디딤돌이자 경험의 분기점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가정에 가풍이 있듯 대학도 전통이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주의 흐름에서 대학의 정체성(소위 학문의 전당이나, 시장이나와 같은 질문으로 대변될 수 있는)이 문제로 지목되고 있으나,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의 역사다. 대학은 저마다의 과정을 거치면서 구성원들에 의해 형성된 독특한 성향을 가진다. 즉 대학의 학풍은 그 대학에 속한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인격과 품성 나아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한다. 그러니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지도 모른다. 사람이 대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왜 그런가? 대학의 교육은 가정에서 받은 교육을 포괄하며 사회적 정의와 도덕성, 나아가 성숙한 사회 시민의식 형성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은 젊은 새내기들에게 중요한 요구를 하기도 한다. 수동적 대학생활보다는 자신이 주체가 돼 대학의 품격과 전통을 재창조하는 '깨어있는 의식'과 사회적 공동체를 생각하는 '인목'을 가지라는 것이다.

이제 20대를 시작하는 젊은 대학인들은 대학생활 전반을 통해 인생의 후반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험들을 쌓아가기 시작할 것이다. 비단 미래의 직업과 사회적 삶을 결정하기 위한 학문 탐구만이 대학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강의실에서 배운 지식과 경험들을 대학생활 과정에서 소통하고 사회와 나누는 일련의 작업들이 미래의 직업선택과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것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와 직결된다!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삶은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대학생활에서의 경험은 인생후반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새내기들의 힘찬 도약과 성장을 기대하며 훌륭한 대학의 학풍을 형성하는데 일조하는 멋진 주체들이 되길 소망한다.



## 우리학교 명수당, 신종 미생물의 서식지로 거듭나다

우리학교 명수당에는 세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신종 미생물이 발견됐다. 매 4계절의 아름다움을 주변 풍경과 함께 공유하는 명수당을 모두가 눈으로만 보고 지나쳤다. 우리나라 호수와 바다에서 식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우리학교 생명공학과 정요찬 박사는 2010년 이후로 지금까지 명수당에서 총 8종의 미생물을 발견했다. 정요찬 박사는 “명수당 물을 채취해 실험하면서 일반적인 미생물이 나올 것으로 예측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며 신종 미생물에 대한 놀라움을 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서해의 염전에서도 여러 신종 미생물을 발견해 논문을 발표했고, 현재도 계속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외대의 호수'라는 단순한 이미지 그 자체로, 추억 속에 잊혀져 갈 뻔한 명수당의 놀라운 가능성을 찾은 정요찬 박사를 만나 보았다.

### ◆ 우리학교 명수당에 신종 미생물을 발견했다고 들었다. 발견한 것 중 독특한 특징을 가지는 미생물이 있었나?

2010년부터 명수당에서만 총 8종의 신종미생물을 발견했다. 이들 중 크리세오박테리움 용인네시스 (Chryseobacterium yonginense)는 남극에 있는 극지연구소에서 발견한 미생물과 유사하다. 남극과 명수당은 추운 날씨를 가지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된다. 물론, 남극이 명수당보다 더 추운 환경이긴 하나 비슷한 종이 남극과 명수당에서 나왔다는 것에서 '추운 날씨의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추측한다. 또, 키티니모나스 용인네시스(Chitinimonas yonginensis)는 키틴을 분해하는 미생물로 밝혀졌다. 키틴은 절지동물의 단단한 표피, 연체동물의 껍질, 균류의 세포벽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성분으로 주로 새우나 게의 껍질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011년 당시 명수당 물가에 새우가 사는 것을 목격한 후 연구를 했는데 새우의 껍질을 이루는 키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이 바로 초록색을 띄는 키티니모나스 용인네시스(Chitinimonas yonginensis)다. 지난 해에는 2종을 추가로 발견해, 기본적인 실험이 끝난 후 이번엔 한국미생물학회에 신종을 인정받을 계획이다. 나머지 6종의 미생물은 비교적 차가운 곳에서 발견되는 미생물과 유사성을 크게 보인다. 생각보다 다양한 신종이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금도 보고할 수 있는 명수당 균주들을 가지고 있다. 명수당에는 여느 호수보다 다양한 신종이 있다고 확신한다.

“하나의 호수에서 매해 미생물 신종을 발견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앞으로 신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연구는 계속 진행 중”

### ◆ 원래 신종을 발견하면 발견자가 미생물에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수당에서 발견한 미생물인만큼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했는지 궁금하다.

미생물의 이름을 붙이는 규칙은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을 발견할 경우 미생물의 특징(높은 온도에서 성장, 붉은색, 특별한 영양 요구 등)을 따서 이름을 붙이는 것을 권장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Chryseo'란 단어는 '노랑'을 의미하는데 명수당의 크리세오박테리움 용인네시스(Chryseobacterium yonginense) 미생물이 노랑색을 띄어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 하지만 발견 장소가 특이하거나 기법이 필요한 경우 지역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또, 새로운 속(종보다 상위 개념)의 미생물은 연구자의 이름이나 연구기관명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속의 미생물의 이름을 붙인 후 포함되는 다른

종(속의 하위 개념)을 발견했을 시에는 꼭 속명을 먼저 쓰고 종의 이름을 붙여야 한다. 2011년 명수당에서 발견한 속에 포함되는 미생물의 최근 실험이 완료됐다. 이 균주에는 우리학교가 연상되도록 '흙스'라는 단어를 넣어 작명중인데 '흙스'나 '흙펠라'의 이름을 고려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 만큼이나 발견한 새로운 종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도 고민이 많이 되는 작업이다.

### ◆ 명수당 이외에 주로 호수와 바다의 미생물을 연구했다고 들었다. 그 쪽을 연구한 계기는 무엇인가.

호수 및 해양만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토양 및 대기에도 관심이 있었다. 다만, 해양과 호수 등에서 연구 실적이 나와 그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라는 지형적인 특징과 주변 환경에 의한 특징들이 서로 맞물려 특이한 환경이 조성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해양에 분포하는 미생물 연구를 시작했다.

###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호수 및 서해, 동해, 남해의 특징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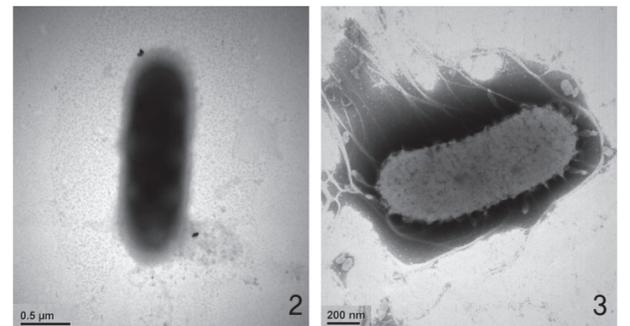
호수는 육지 위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이다. 대부분은 저수지, 댐의 형태로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 가둬 놓은 형태와 자연 발생적인 호수가 있다. 인구 밀집지역에 있는 호수들은 특별히 관리 하며 소양호, 파로호 등 자연적으로 잘 관리 되고 있는 호수도 있다. 우리나라 해양 환경은 동해, 서해, 남해가 각각 너무도 다르다. 바다이니 만큼 3% 내외의 소금물로 이뤄진 것 외에 서해는 육지와 각종 민물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모래사장 보다 갯벌로 이뤄진 환경이 많다. 남해는 갯벌 해안과 복잡한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동해는 모래사장을 지닌 해안과 깊은 해양환경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각각 분포하는 미생물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계속 연구 중이다. 현재 학계에서도 서해안에서는 소금과 관련된 미생물과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동해안에서는 독도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발견됐다.

### ◆ 서해의 염전 지역에서도 신종 미생물을 많이 발견했다고 들었다. 왜 서해 염전 직역에 신종 미생물이 많이 나오는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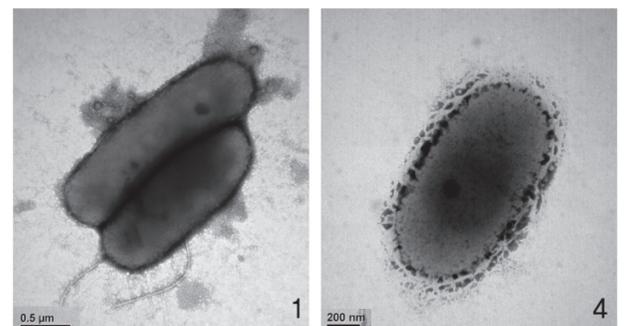
서해에서는 3종의 신종 이외에도 현재 연구 중인 것들이 더 많아 앞으로 신종이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지금까지 대부분의 신종은 전남 신안의 증도 염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나라 염전은 약 100년 이상을 지켜온 전통기법을 추구해, 그곳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 볼 수 없는 특이한 환경이다. 증도의 염전을 택해 많은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종들을 발견했다. 증도에서 발견된 에키니콜라 증도네시스(Echinicola jeungdonensis), 폰티박터 셸리사로(Pontibacter salisaro), 그램렐라 증도네시스(Gramella jeungdonensis), 폰티박터 증도네시스(Pontibacter jeungdoensis), 싸이클로박테리움 증도네시스(Cyclobacterium jeungdonensis)등이 대표적이다. 대부분 소금이 있어도 생활할 수 있고, 빨간색을 띄는 특징을 지닌다. 또한 새만금에서 발견된 폰티박터 새만금메시스(Pontibacter saemangeumensis), 태안에서 발견된 알고리파거스 태안네시스(Algoriphagus taeanensis), 서해안 갯벌에서 발견된 그라멜라 갯벌리콜라(Gramella gaetbulicola) 등은 서해안 여러 곳에서 발견했다. 특히 알고리파거스 태안네시스(Algoriphagus taeanensis)는 태안의 유류 오염 사건이 났을 때 관심을 갖고 실험 했으나 기름 분해 미생물과는 상관이 없어 실망하기도 했다. 하지만, 서해 염전 지역은 그 지역의 특이한 환경적 요인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할 계획이다.

최운영 기자 88absdud0799@huils.ac.kr

### Chitinimonas yonginensis(키티니모나스 용인네시스)



### Ferruginibacter yonginensis(퓨로지니박터 용인네시스)



▲ 명수당에서 발견된 신종 미생물 8종 중 2종이다. 위 Chitinimonas yonginensis(키티니모나스 용인네시스)는 2011년도에 발견된 것으로, 분해가 잘 되지 않는 키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이다.

### 정요찬 박사가 발견한 명수당 미생물 이름

- 페도박터 용인네시스(Pedobacter yonginense)
- 크리세오박테리움 용인네시스(Chryseobacterium yonginense)
- 뮤실라지니박터 명수엔시스(Mucilaginibacter myungsuensis)
- 하이메노박터 용인네시스(Hymenobacter yonginensis)
- 플레이보박테리움 용인네시스(Flavobacterium yonginensis)
- 플레이보박테리움 명수엔시스(Flavobacterium myungsuense)
- 퓨로지니박터 용인네시스(Ferruginibacter yonginensis)
- 키티니모나스 용인네시스(Chitinimonas yonginensis)

### 〈정요찬 박사의 주요 논문〉

- Identification and diversity of bacterial population of sea water 정요찬 韓國外國語大學校 大學院[2010] [국내박사]
- GFP를 이용한 autoinducer를 검출할 수 있는 새로운 vector 개발 정요찬 조기성 (기초과학연구, Vol.15 No.-, [2003])
- 다양한 중금속에서 mer operon의 발현 = Expression Of The mer Operon by Various Heavy Metal 정요찬 김혜원 조기성 (기초과학연구, Vol.11 No.-, [2001])
- 식품폐기물 처리용 단백질 분해 효소 생산 균주의 분리과 특성 정요찬 안정미 조기성 (기초과학연구, Vol.8 No.-, [1999])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유선 기자

## 고구마 같은 기자



마감 날 새벽 배고픈 배를 달래려 고구마를 삶았다. 원래 고구마를 무척 좋아한다. 그래서 학보 기자가 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할 때마다 고구마를 더욱 찾곤 했다. 몇 분 후 고구마의 안부를 확인하려 냄비 뚜껑을 열어 옆구리를 쿡 쿡 찔러보았다.

고구마의 옆구리를 찌르며 학보 선배들이 머릿속에 스쳐지났다. 학보 선배들은 수습기자교육을 받는 기간 끊임 없이 내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글은 잘 쓰고 있어? 취재처는 잘 돌아오니? 요즘 대강하는 것 같다...' 끊임없이 확인하는 선배들의 관심이 짜증나 귀찮은 듯 대답하기도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계속 내 옆구리를 찌르던 선배들 덕분에 무사히 첫 취재와 마감을 마칠 수 있었다.

외대학보 기자에 지원한 건 장래에 '기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었다. 학보에서는 우리사회 모습을 알리고 비판하는 글을 주로 쓸 줄 알았다. 그런데 항상 기사주제를 선정할 때 '왜 하필 지금 이게 외대학보에 실려야하나?'라는 물음을 계속 던져야만 했다. '대학언론'과 '대학기자'라는 개념이 없었던 수습기자는 '외대'라는 범위 내에서 주제를 선정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방향 중에도 학교를 나와 오전부터 교육을 받아야 했기에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수습교육기간동안 학생대표의 등록금심의위원회 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아 학생 권리가 침해당하는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학교가 처한 현실을 알리는 대학기자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 요즘 대학신문을 누가 보냐고 할 만큼 '대학신문의 위기'라지만 학우들의 옆구리를 계속 찌르며 말하고 싶다. 실질적으로 학우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학교문제'다. 그렇기에 학교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외대학보를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호는 정기자기가 돼 쓴 첫 기사이기에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익어가고 성장하는 과정이기에 이 힘든 과정들이 행복하고 소중하다. 특히 이번 해는 우리학교 개교 60주년이다. 외대학보는 신임총장이 취임하고 다음 해 본지 창간 60주년을 맞이하는 만큼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이다. 기자도 앞으로 '자유언론 전문직업'이라는 본지의 기조를 믿음과 신뢰를 주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더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지만 그 때마다 고구마를 먹으며 다잡할 것이다.

거친 환경에서 자신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노력해 걸은 투박하지만 점감가고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단 맛을 주는 고구마. 그 고구마처럼 낮은 자세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고, 발로 뛰어다니며 고구마 찌르듯 학교와 학우들의 옆구리를 여기저기 찌르겠노라고...



## 휴스토어(HUFStore)

외대학보와 함께 하는 중고장터, 휴스토어(HUFStore)

- HUFStore에서는 본교 재학생(외국인 교환학생 포함), 교수, 직원들을 포함한 모든 외대 구성원들의 중고물품 판매, 구매, 교환, 무료나눔 광고를 받습니다.
- 외대학보 홈페이지에서 신청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86leg@hufs.ac.kr로 보내주세요.
- 매호 대략 10개 이내의 광고가 외대학보 지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거래 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 At HUFStore we accept advertisements for buying, selling, exchanging, and sharing of every kinds of second-hand goods or items from all HUFsans including students, foreign exchange students, staffs and professors.
- Please download and fill out the form on our Website and send it to 86leg@hufs.ac.kr
- Around 10 applications will be advertised at each issue in our newspaper, HUFStore corner.
- 외대학보(Oedaehagbo) does not hold any legal responsibility in the transaction. Each trading party is responsible for all transactions.

### 예시 Example

전공서적 구합니다. (BUYING BOOKS OF MAJOR)  
재무관리(강효석, 형설출판사) / 010-1234-5678

mp3 판매합니다. (MP3 FOR SALE)  
Apple iPod shuffle / 30,000원 / lee123@hufs.ac.kr

일시  
정치

## 일 년이 넘도록 광화문을 떠나지 못하는 그들을 아시나요?



560일. 어느 다정한 연인이 함께한 일자가 아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의 무기한 농성일자다. 시위 기간 동안 7명의 동료를 잃기도 했다. 그들은 장애인을 비인격적으로 차별하는 장애등급제와 가난한 이를 더욱 가난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부양의무제를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투지와 의지로 땀은 벌써 두 번의 겨울을 이겨냈다. 부디 공동행동이 웃으며 해산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길 고대한다.

신민지 기자 86hufspres@hufs.ac.kr

##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4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 ◆ **활동내역** 2014년 1학기 외대학보 968~973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총 6회, 개인 당 2회)
- ◆ **모집단위** 글로벌배움터 3명 / 서울배움터 3명
- ◆ **모집기간** 3월 8일(토)까지 / 9일 합격자 발표
- ◆ **지원방법** 학교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 또는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후 학보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서울배움터 88question@hufs.ac.kr  
글로벌배움터 88dbsdud0799@hufs.ac.kr
- ◆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대 구성원
- ◆ **활동혜택** ①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② 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③ 기념품 지급
- ◆ **문의** 서울배움터 김태훈 기자 010-9552-5095  
글로벌배움터 최윤영 기자 010-3020-0799



독자위원이 써 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 취업현실, 우려 그리고 기대

### 직원의 말풍선

정용호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팀장



최근 경력개발센터에 방문한 취업준비생의 뜨거운 눈물을 잊지 못한다. 1년여를 취업준비에 매달렸지만 아직까지 취업하지 못해 시간만 가고 있다며 흐느꼈다. 연봉이나 기타 조건은 전혀 필요 없고 아무 기업이나 입사해 다른 사람처럼 멋지게 양복입고 출근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다.

경력개발센터에서 느끼는 취업현장은 그야말로 전쟁터다. 최근 삼성그룹에서 채용방식의 변화를 꾀하려다 대학의 반대와 여론의 못매를 맞고 백지화했던 일이 있듯 기업은 기업대로 좋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스펙전쟁으로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이며, 학교는 학교대로 취업을 유지와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

식으로 최선을 다한다. 더불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취업률 70%를 목표로 K-MOVE 등 해외취업 프로젝트 및 여성취업 확대 관련 여러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야말로 국가 구성원 모두가 취업에 매달리는 취업난 시기다.

우리 외대인의 취업 현실은 어떠한가? 2013년 건강보험직장가입자 DB와 연계한 취업률 지수는 51.1%(글로벌배움터 기준)로 다소 고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는 경인 지역 타 대학과 전국 대학 취업률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러나 단순 지표보다 중요한 유 지취업률(일정기간 동안 이직하지 않고 최초 취업기업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는 비율 산정 방식)에서는 90% 수준을 유지해 취업의 지표는 낮지만 질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는 취업을 일단 대기업 혹은 안정적인 기업 등의 직장을 구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어느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대기기업의 이직률이 입사 3년 안에 30%에 달한다고 한다. 본인의 직무적성과 직업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일단 기업명만 바라보거나 안정적인 급여 수준, 복지혜택 등만을 염두에 둔

취업이 결과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다행인 것은 앞서 유지취업률 지표에서 확인한 것처럼 우리 외대인의 경우 나름대로 본인의 적성에 맞춰 취업한다고 생각한다.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이점을 주목해 재학생에게 저학년 때부터 자신의 적성과 직무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합적 진로설정을 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관의 적극적인 상담 등 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국민은행과 삼성그룹에서 통섭형 인재(융복합인재)를 선호하며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이공계 인재(또는 이공계열 소양을 갖춘 인문학 인재)를 원하는다는 소식은 대학시절에 자신의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문에 대한 접근이 요구된다. 더불어 본인과 적성에 대한 기본적이고 진지한 고민의 요구가 사회적으로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단순 스펙위주의 취업준비가 아닌 자신을 돌아보며 원하는 직무 설정으로 역량을 향상해 당당히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외대인이 많아지길 바라며, 그 길에 경력개발센터가 작지만 커다란 도움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소망이다.

### 사설

## 청마의 해 힘차게 달려가는 외대

어느덧 희망찬 2014년 새해를 맞이한 지 2달이 지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사람들은 늘 새로운 해가 다가오면 그 해의 십이간지를 생각하고 천간을 통해서 색을 입힌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떠올리며 부푼 기대를 안고 새해를 시작한다. 60간지에 따른 매해의 특별한 의미는 곧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북돋아 주며 새해를 시작으로 12달을 거친 한 해의 인생이 깊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와 격변의 전주곡에 맞춰서 흘러가고 있다.

올해는 갑오년(甲午年) 말띠 해다. 특히 올해는 말띠 중에서도 60년마다 돌아오는 청마(靑馬)에 해당되는 해로 행운을 상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4년 새 학기는 외대에 큰 변화가 있는 해이다. 우선 그간 유례없을 정도로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10대 총장에 취임한 김인철 총장의 임기가 새 학기와 함께 시작된다. 이와 함께 이번 학기는 외대 개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또한 광역화라는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는 학기이기도 하다.

지난 60년간 외대는 외국어교육과 지역학을 바탕으로 한국발전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 왔다. 오늘날 세계 속의 강대국 대한민국을 일구어 온 견인차에 외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에 외대는 새로운 시대적 사명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다가오는 100년 외대를 개척할 특화된 솔루션과 비전이 필요한 시기이다.

청마의 해에 시작된 새로운 총장의 외대가 우리 대학의 경쟁력 확보와 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행운, 행복을 상징하는 청마의 기운을 받아 시대가 원하는 인재이자 목표를 위해 열심히 달리는 꿈이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진정한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드높이는 것은 외대 구성원 모두의 바람일 것이다. 새로운 총장의 취임사처럼, 이번 새 학기가 “어우림의 미학(Art of Association)”을 통해 구성원들 간의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 ‘또 다른 외대’를 위한 도약의 새 학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 사람만을 위한 역사는 없다

우리학교가 환갑을 맞았다. 뿐만 아니라 신입 총장 취임부터 수강신청 변경 방식까지 교내에는 크고 작은 변화가 이뤄졌다. 현재 우리학교 역사관에선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우리학교 역사를 정리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 2월에 벌써 마무리 될 뻔한 위기 아닌 위기를 겪었다. 1954년부터 2013년까지 ‘59년사’가 될 뻔한 것이다.

지난 역사관장으로 60년사 편찬을 맡았던 노명환 교수는 “공적 역사편찬의 가장 큰 의의는 구성원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과정과 결과물을 통해 그 조직이나 국가의 공동의 정신을 확고히 하고 드높이는 것”이라며 역사편찬의 의의를 분명히 한 바 있다. 노명환 교수가 2013년 12월 28일 교수협의회에 제출한 안건에 따르면 “당시 총장이 역사편찬에 막대히 개입하고 있으며, 졸속으로 편찬되고 있다”며 문제점을 꼬집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60년사’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의제기를 통해 발간시기를 논의 중이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박철 전 총장 8년간의 재임록 제작에 상당한 예산이 계획됐다. 내용 역시 대학행정의 기록이라 하나, 재임 동안의 사진을 정리한 화보집과 언론에 비친 박철 전 총장의 업적 등으로 구성돼 빈축을 사기도 했다. 부족한 학교 살림에 60년사 편찬과 동등한 비용이 편성된 재임록의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 본다.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동호의 붓’이라는 뜻으로, 역사 기록에 있어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적어 남기는 일을 말한다. 60주년, 신입총장 취임, 본분교 통합 등 2014년은 우리학교에 그 어느 때보다 뜻 깊은 한 해다. 또 다른 발전의 도약점이 될 이번 해의 역사기록 또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함이 기준이 돼야 할 것이다. 본지 역시 우리학교 역사 기록관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 번 동호지필의 자세를 다잡을 것이다.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캐너머 듣는 교양(7매) / 직원의 말풍선(7매) / 일시정지(사진) / 비둘기 칠판(3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facebook.com/newhufspress 편집장 신민지(통번역 · 태국어 11) 010-4002-0299, 86hufspress@hufs.ac.kr

##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신민지  
부장 이은결  
제작 경보미디어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www.oedaeagbo.com  
facebook /newhufspress

### 만평



### 빈 의자

국·부장 고정칼럼

## 당신의 몸도 등급심사 받아보시겠습니까?

▲지난 2월 24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국제 엠네스티가 우리나라 인권 상황이 우려된다는 서한을 보냈다. 내용에는 철도노동조합 파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범의노동조합화, 밀양 송전탑 등 인권을 위협했던 지난 현안이 담겨있다. 엠네스티에서 우리나라에 서한을 보낸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전주교인권위원회는 제 3회 ‘이돈명 인권상’ 시상식을 열었다. 상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받았다. 공동행동은 2012년 8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인단체와 시민단체가 연합돼 출범한 단체로 장애인등급제와 부양의무제 철폐를 외치고 있다. 공동행동은 출범과 함께 광화문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는데 그 시작부터 녹록치 않았다. 광화문역에 농성장을 차리기 위해 경찰과 24시간 동안 대치해야했기 때문이다.

▲3월 4일 현재, 공동행동은 560일이 넘도록 광화문역을 지키고 있다. 심지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7명의 동료들을 떠나보내기도 했다.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등으로 목숨을 잃거나 스스로 끊은 것이다. 장애등급제심사에서 탈락하거나 가족의 지난 소득만으로도 자격을 잃어 더 이상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스스로 생을 포기하는 것이다. 활동보조자가 없는 사이 화재로 어린 남매가 사망하기도 했다.

▲장애등급제란 장애인의 몸을 의학적 기준으로 1부터 6까지의 등급으로 나눠 복지혜택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다. 이 중 1,2등급만이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제는 부모나 자녀와 같은 직계가족에게 재산이 있으면 그들에게 부양의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이는 보다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목숨을 위협한다. 이돈명 인권상을 수상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장애인이 등급제로 소외되고 차별받는 삶은 일상이고 낙인”이라며 “부양의무제는 가족공동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는 복지 혜택을 제약하고 부양의 의무를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떠넘기며 그들을 더욱 빈곤의 궁지로 내몰고 있다. 이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지켜보자니 장애인들 ‘사회악’으로 낙인찍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 국가가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것’처럼 비칠 뿐이다.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한 대선 후보자들은 장애인 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고 그들을 더욱 거리로 내몰고 있는 실정이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9번 출구의 무기한 농성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그 날을 응원한다.

# 노래로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고 지친 이들에게 위안이 되다

삶을 노래하는 가수 '백자' (백재길 · 경영 90)

민중가요로 시작해 서정적인 포크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은 고(故) 김광석은 가요계의 전설로 남아있다. 20년 가까이 민중가수로 살아온 '백자'는 김광석과 다른 듯 닮았다.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때로는 시위현장에 기운을 불어넣고, 때로는 서정적인 멜로디로 듣는 이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를 만났다.



**외** 민중가요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운동에서 불리는 모든 노래를 말한다. 민중가요에 대한 본인의 정의는 무엇인가?

**백** '민중가요가 무엇이냐'를 말하기 위해 먼저 탄생배경을 말해야 할 것 같다. 민중가요는 대중가요가 제 역할을 했다면 생겨나지 않았을 영역이다. 광주항쟁 당시 눈앞에서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라디오에선 사랑노래만 흘러나왔다. 그래서 대중은 농민, 청년, 학생, 노동문제 등에 관한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부르기 시작했다. 이것이 민중가요의 시작이다. 대중가요가 불러주지 않는 사회의 그늘을 노래하고 사람들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한 노래, 그것이 민중가요의 뿌리이자 역사이다.

**외** 그러나 시대가 변했다. 민중가요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줄었고 학생들도 더 이상 부르지 않는다. 민중가요의 역할이나 가치도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백** 2000년대부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인 대중의 활동이 흐트러지며 자연스레 민중가요에 대한 관심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대중의 사회참여가 '촛불집회'라는 다른 형태로 대체됐듯 민중가요도 여전히 존재한다. 민중가요의 영역은 축소됐지만 역할이나 지향하는 가치까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윤도현, 김장훈과 같은 가수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리쌍, 에픽하이 등의 힙합 가수들은 사회적인 내용의 가사를 받아들였다. 줄어든 민중가요의 영역을 대중가요에서 조금씩 대체해주고 있는 것이다. 인간의 아픔을 위로하고 사회문제를 노래로 불러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민중가요의 가치와 역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외** 어떻게 민중가요를 접하게 됐나?

**백** 고등학교 때 전국교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결성하려던 선생님들이 해직되는 것을 보고 친구들과 함께 분노했다. 사회의식에 눈을 뜬 계기라고 할 수 있다. 때마침 민중가요를 몰래 듣는 게 유행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민중가요 테이프는 불법이었다. 고등학생들은 비밀을 좋아하지 않는다.(웃음) 친구들과 몰래 듣는 민중가요의 속 시원하고 강렬한 가사는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에게 희열 그 자체였다. 원래 시를 쓰고 기타를 치는 것을 좋아했는데 고등학생 때는 듣기에 그쳤지만 대학시절부터 친구, 형들과 함께 경영대학 노래패를 만들어 활동했다.

**외** 맥박 활동 외에도 대학시절을 파란만장하게 보냈다. 학생운동을 하다 수배를 당해 도피생활도 하고 제적을 당했다가 재입학해 끝내 졸업하는 등 매일이 사건·사고의 연속이었던 것 같다. 어떻게 이런 생활을 보내게 됐나?

**백** 대학시절 내 마음속에는 크게 2가지 사건이 자리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전교조 해직 교사들이고 다른 하나는 5·18 민주화 운동(이하 5·18)이다. 어려서 5·18을 잘 몰랐지만 가족들은 당시를 광주에서 보냈다. 그런데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도 정부는 5·18을 북파 공작원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매도했다. 그때 세상이 보여주는 게 전부 아니란 것을 느껴 자연스레 운동권이 됐던 것 같다. 90년대 초는 학생운동이 활발하던 시기이기도 했다. 정기총회를 열면 노래패·풍물패 학생들이 수백 명씩 모여 공연을 열었다. 우리학교의 특성도 그러한 열기에 한 몫을 했다. 좁은 곳에 많은 과거 모여 있다 보니 역동성이 강했다. 지금 돌아보면 대학시절의 도피생활이나 우여곡절들은 지금까지도 좋은 추억이다.

**외** 지금까지도 사회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워 기획공연을 열거나 시위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와는 다르게 솔로앨범에선 굉장히 서정적인 멜로디와 가사를 들을 수 있다. 어떤 모습이 가수 백자의 모습인가?

**백** 둘 다 백자의 모습이다. 솔로활동에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는 것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소재를 노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노래나 이별노래를 자유롭게 부를 수 있다. 한때는 사회적인 내용의 노래와 개인적인 감상을 표현한 노래의 경계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고민한 적이 있다. 그때 '담쟁이'라는 곡이 이 고민을 해결했다. 담쟁이는 개인의 감상을 표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아픔까지도 위로할 수 있는 노래다. 흥대 클럽이나 시위 현장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불러도 어색하지 않다.

2월 24일 가톨릭 청년회관에서 열린 '천주교인권위원회 후원의 밤' 축하무대에서 노래하는 백자를 만날 수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인권활동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인혁당 사건\* 피해자의 유가족, 장애인 인권을 위해 싸우는 활동가, 해직노동자 등이 얼굴을 비쳤다. 파란 셔츠에 회색넥타이를 맨 말끔한 모습으로 기타를 들고 무대에 선 백자는 자신의 곡 '담쟁이'를 열창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했다.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중략)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노래 '담쟁이' 가사 중에서



▲무대 위에서 열창하고 있는 백자. 담쟁이 외에도 김연아 선수가 소치올림픽에서 갈라쇼 배경음악으로 사용했던 존 레논의 'Imagine'를 불렀다.

**외** 모든 곡을 작사·작곡하는 싱어 송 라이터일 뿐만 아니라 영화음악도 감독할 정도로 음악적 능력이 뛰어나다. 경영학과 출신으로 전문적인 음악교육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런 음악적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나?

**백** '내게 음악적 역량이 있나' 이걸 스스로에게도 늘 의문이다. 그런데 최근 조정래 씨가 쓴 '황홀한 글감옥'이라는 책을 읽다 해답을 얻었다. 내용 중에서 한 문학청년이 조정래 씨에게 "문학적 자질이 무엇이며 나에게 문학적 자질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이에 저자는 "글을 쓸 때 재미있느냐?"고 되물으며 "글을 쓸 때 기쁨을 느낀다면 당신은 큰 재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이 맞다. 20년 넘게 음악을 해오며 노래 잘 하고 곡 잘 쓰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았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음악인의 길을 걷지는 않더라. 자질의 여부는 자신이 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는 지에 달렸다. 나에게 그런 점에서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음악을 하는 것이 재미있고 즐겁다. 곡을 써서 나를 표현해 내는 것에 희열을 느낀다. 노래에 대한 열정과 즐거움이 내 음악적 능력의 원천이다.

**외** 민중가요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수록 금전적인 문제도 클 것 같다. 음악에 대한 열정도 꺾일 만큼 힘들었을 텐데 변함없는 모습으로 음악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가?

**백** 금전적인 어려움은 사람을 참 힘들게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다. 열마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어려움은 비교에서 온다. '내 주변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법이다. 생각을 비우면 같은 상황에서도 마음 상태가 달라진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금전적인 어려움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외** 민중가요를 부르는 가수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백** 앞으로도 지금처럼 꾸준히 노래를 창작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한 사람의 활동으로 단번에 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하나의 파장으로 그치겠지만 계속해서 수면 위에 돌을 하나씩 던지다보면 그걸 본 누군가가 함께 돌을 던져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그럼으로 더 많은 파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용기와 연대를 주는 것이다. 이런 역할들이 모이다 보면 사람들의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젊음의 거리 흥대에 위치한 작업실을 모체로 활동하는 백자는 그곳의 어떤 청년보다도 더 젊은 사람이었다. 여전히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그는 새 앨범을 빨리 내고 싶어도 팬들이 부담스러워할까 참고 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불혹을 넘은 나이에도 SNS가 자신에게 너무나 잘 맞다는 등 마치 또래 친구와 대화하는 듯한 느낌을 준 백자. 그의 노래 '산'의 가사처럼 '변함없는 모습으로 언제나라도 어김없는 모습으로 그곳에 서있어 주길' 바란다.

글 김태훈 기자 88question@hufs.ac.kr  
사진 신민지 기자 86hufspress@hufs.ac.kr

\*인혁당 사건 : 1960~70년대 중앙정보부가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북한'의 지령을 받는 지하조직을 결성했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혁신계 인사와 언론인, 교수, 학생 등을 검거한 사건. 2007년과 2008년 사법부의 재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